

	<h1>보도자료</h1>	2022. 2. 28 (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성과 소개 “청년의 꿈과 도전이 빚더미에 짓눌리지 않게, 국가가 짐 나눠질 것”

-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도입하고 지원 기간과 대상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수혜자 10명 중 9명 만족 평가
-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 하나하나 추진” …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8일 SNS를 통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의 꿈과 도전이 빚더미에 짓눌리지 않게 청년의 짐을 국가가 나눠지겠다” 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8번째 시리즈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은 대학·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미취업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소득 8분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경기도지사가 되어서 원래 운영하던 ‘경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의 지원 기간과 대상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5년이던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대학원생은 2년에서 4년으로 2배까지 늘리고, 소득제한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19년 상반기 접수 결과 2만 1,877명이 신청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신청자가 162% 증가했다. 같은 해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실제 이자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이자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짐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지는 그만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SNS 메시지 전문

<청년의 꿈과 도전이 빚더미에 짓눌리지 않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청년의 짐을 국가가 나눠지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을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가 나락으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학생 이재명도 그랬습니다.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가 공부였지만,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선 또다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았던 생활보조금 20만 원 저의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주력한 이유입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고도 매월 이자를 내기 위해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쏟아야 한다면 어떤 청년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성남에 사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는 원래 운영하고 있던 ‘경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제도’의 지원 기간과 대상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5년이던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대학원생은 2년에서 4년으로 2배까지 확대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자 지원을 위해 가난을 증명하지 않도록 기존의 소득 기준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이 돈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2019년 상반기 접수 결과 2만 1,877명이 신청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혜자가 162% 증가했습니다.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자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짐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지는 그만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입증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뼘 한 뼘씩,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8.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재명은_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31104200933>